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

- 1、教會에 革新을
- 2、社會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제 25 회 광복절을 즈음하여

관서지방교회 연합예배

해방후 25년을 역사속에서 변천이 심한 이역생활로 겪은 한국인 기독교인으로서 언제나 마음속깊이 기도의 제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조국의 참된 번영과 평화를 관서 지방교회 온 교인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간곡한 기원으로 올리자는 일련된 심으로 제 25회 광복절을 즈음한 연합예배를 드리었다. 東大阪市民館에서 8월 16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관서 지방 15교회 교인 약 600명이 모여 예배를 사작하였는데 특별 강사로 홍동근 목사의 신앙의 심금을 흔드는 감명깊은 설교가 있었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 기독교인으로서 조국을 나의 조국으로 생활의 배경으로 삼고 국제적인 특수현실에서 극히 진실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자명감으로 값있게 살아야 한다. 한국인이라는 것은 자각으로 민족의 긍지를 몸에 가취 국제사회에서 빛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인간본성의 자유를 지켜 자기자유와 남의 자유를 기본인권의 주창으로서 지켜 나가야 한다. 재일 유입만동포속에서 동포와 함께 운명을 지고 역사책임과 사회책임을 진지하게 담당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와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의 제단에 지성으로 바치고 광복절 기념예배로 드리었다. 예배에 이어 지방회장의 大阪生野區에 건설될 KCC 건설에 대한 설명과 권장에 관서에 사는 우리로서 뜨거운 찬의를 하나님께 올리었다. 점심은 각각 준비된 대로 나누고 오후 2시부터 노래 자랑 경기를 개막하였다. 심사위원장으로 김경찬 목사가 심사원 4명과 더불어 32명의 출연자의 심사를 하였는데 노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다채한 종류의 노래들이 벌려졌다. 흥이나고 박수의 소낙을 맞은 가수들의 붉어진 얼굴은 비록 외국땅에서

많은 생활속에서도 한국인의 자량과 삶을 힘껏 마음껏 쏟은 듯하였다. 처음되는 경기이기에 우승자는 없었으나 사등까지의 입상자는 각각 상장과 상품을 받고 대성황리에 경기를 마쳤다. 오후 세시반부터 이창우 목사의 사회하 지방회장 김영복 목사의 설교로서 저녁예배를 드리었다. 외국생활에 어느듯 희미해진 조국애와 민족적 자각을 일깨워 드는 광복절을 즈음한 연합예배는 민족적인 단결과 기독교인의 자필에 크나큰 의의와 성과가 있는 것이다.

드디어 매매계약 성립

KCC회관 건설기지와 건물 구입

총회 전체가 역사적 대사업으로 大阪市生野區에 KCC회관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지난 6월 9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총의를 모아 건설을 결의하였던 것이다. 그 후 약 3개월 동안 위임받은 건설위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교섭하여 온 기지 318평과 건평 42평의 철

근삼층 건물 구입을 드디어 9월 8일 지주인 大阪口一會社와 완전계약을 맺게 되었다. 건설위원장 김창업 장로를 비롯하여 건설위원으로 유석준, 백인도, 김경추, 전영복, 각각 위원들 大阪교회 유시환, 윤용도, 문창숙, 여전도회 김향운 회장, 오선비, 김수태, 각 임원들 이영숙 총

무 大阪교회 임시당회장 김원치 목사 등 입회하여 大阪口一會社社長 根本伸也 외 삼명 과 더불어 매매계약을 교환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불하여 이제 역사적인 KCC 건설의 발족을 보게 되었다. 전영복 목사가 역사의 주되시는 하나님 앞에 KCC 건설의 발족과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간곡히 기도하였다. 이제 요단강에 첫발 거음을 드디기 시작한 재일 대한 기독교회 총회가 일단 1971년 5월 말까지 1억 만 원이란 거액의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여야 하겠다. 이제는 막대한 골목에 막아서게 되었고 뒤로 물러나 지못한 태세로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으로」의 우리의 특수 사명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게 되었다. 총회원전체는 이제야 한 뜻을 향하는 한 조직으로서 마음과 힘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구입한 건물의 수리로부터 시작하여 총회총력을 다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총회원 목사, 장로는 전두지휘로 용기있게 나서야 하겠고 온교인은 재일 대한 기독교회를 질머지고 나서는 기백으로 총력을 모아가 이루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예산총액은 수리비 등기비용 등 합하여 1억 1천 만 원이며 이에 대한 조달예안은 KCC 위원회 재산 1,360만 원, 大阪교회 재정 총액 4,250만 원, 여전도회 재정 700만 원, 총회전체 모금 3,690만 원, 캐나다자매교회 1,000만 원, 제 1억 1,000만 원, 총회전체로서 3,690만 원이

상을 조달하여야 하겠는데 각 지방별로서 나누어 다 음과 같은 모금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관동지방 700만 원, 중부 지방 500만 원, 관서 지방 1,800만 원, 서남 지방 700만 원, 합 3,700만 원.

KCC 건설 모금위원과 각 지방 모금위원 각 교회에 위촉받은 모금조원들이 일제에 일어서 총력을 모금에 기울여 KCC 건설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활동해야 하겠다. 가까운 일본교회와 모국교회, 캐나다자매교회, 미국독일 각 나라교회가 재일 한국인의 구명을 위하여 힘을 쓰는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직접적인 사명달성을 위해 완전히 총회전체가 한 뜻 한연성으로 뭉쳐야 한다. 토지건물의 매매계약의 순서는

1970년 9월 8일 계약금 2500만 원, 1970년 12월 20일 계약금 4,000만 원, 1971년 5월 30일 잔금 3,500만 원. 건물은 9월 8일 계약과 동시에 수리를 시작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총회전체 교인이 기도 에 힘쓰고 모든 것을 주께 바쳐 앞으로 영구한 재일 한국인의 선교의 유산을 남겨야 하겠다.



印刷는

僑 文 社

716-5046

예루살렘 로마 파리 런던 주내 一부를

대 여행
大 旅行

★ 13日間, 1970年 11月 2日 ~ 11月 14日
★ ¥467,100-

기독교자가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낳으셨든 말구유 십자가의 갈보리 겐세마네 요단강 등 성경의 곳곳을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이 걸으신 곳을 나 도 걸어보는 여행입니다. 그외 구라파의 주요도시를 낱낱히 관광하는 대 여행계획에 필 참가하옵기 삼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海外への

ご旅行は.....

株式会社

世界旅行社

本社・大阪市天王寺区筆ヶ崎町17
大阪興銀ビル4F/TEL 06 (772) 5667
大阪東区東本町1丁目1番地/TEL (991) 3756

Universal

Travel Service Co., Ltd.

社長 金 振 玉

여전도회10월 월례 회를 위 하 여

영혼의 양식

종도신예수님

요한13:1~20

관동지방

수양회 마치고

8월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富士山기슭에서 관동지방여전도회의 수양회를 보람차게 마쳤읍니다. 강사 유병찬 목자님의 인도로 빌립보서 전장을 자세히 공부하고 참석한53명회원이 모두 이에 문답을 주고 받으며 빌립보서에 나타난 예수님께 대한 이해를 새롭게 배웠읍니다. 따라서 윤관병집사님의 인솔하에 10년간 쌓아올린 관동지방여전도회의 단체훈련으로 질

서정연하게 箱根一帯와 富士五湖를 다 관광하며 무사히 즐겁게 돌아온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이 배후에는 또한 주안에서 기도로 숨은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집은택 전도사님 이금용회장님과 유명옥, 박정자, 김숙도, 최금분, 구임이 여러 임원님들의 정성어린 수고와 협조가 깃들어서 금년에도 아담하게 수양회를 마쳤읍니다. N.C.C.

부인연수회

8월20 21일 양일간 N.C.C부인연수회가 山中湖畔 普連土学園에서 모였읍니다. 여기에 우리 재일대 한기독교회 여전도회에서는 장필례교육부장 이영숙총무 두분이 참석하였읍니다.

주제: 新しい時代、新しい人間 (골로새3:11,12,14) 참석자:35명 (N.C.C.안의 여러교파에서 모여오다)

—이 상—

복

음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堺教会牧師尹宗銀

스가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도나 무와 무화과 나무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스가라 10:3)고 「홍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땅에 거하던자에게 빛이 비취도다……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살롬•의 왕이라 함것임이라 그정사와 살롬의 연합이 무궁하며 또다 원의위에 앉아서 그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심 것이다」 (이사야9:2, 6~7) 하였다. 이주제는 번번히 구약성서에 나타나고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얼굴을 네게로 향하여드사 「살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함지니라」 (민6:22~26) •살롬•은 구약성서에 만만한 것이아니다. 신약성서에서도 「살롬」의 사상은 소리높히 울려지고있다.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취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금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살롬•이라」 (눅2:8, 13~14)

이와 같이 •살롬•의 개념은 신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롬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나의 •살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살롬•은 세상이 아니하니라」 (요14:27) 바울은 그의편지의 초두의 인사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살롬•이 있기를 원하노라」 (롬1:7) 하였다. 예수는 •살롬•을 도래시키시는 분이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살롬•으로 살며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백성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있다는것을 더욱잘 이해하기위해서 우리들은 •살롬•이 지니고있는 몇가지의 요소를 생각해볼필요가있다.

1. •살롬•의 첫째요소는 •화해•이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의 사명은 화해를 증언하는데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5:17~18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하는 직책을 주셨으며…… 화목하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해•는 하나님의 •살롬•이다. 또 이화해는 에베소서2:14~15에서도 말씀되고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롬•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이들로 자기안에서 한새사람을 지어 •살롬•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하심이라 원수됨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되」 바울은 중간에 막힌담이 나사렛 예수안에서 헐어져 버렸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면 그중간에 막힌담이란 무엇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차별감정이 었든것이다. 그 차별 감정안에는 첫째로 종교적인 「중간에 막힌담」이 었을 것이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였지만 그밖에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였다. 여기에 종교적인 백성과 비종교적인 백성과의 차이가있다.

둘째로 인종의 차별이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과의 차별은 심히 컸든것이다. 셋째로 문화의 차별이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안식일을 엄숙히 지켰으나 이방인들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취제해 버리고 화해를 이룩하였다. 예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피차에 차별하고 있는 중간에 막힌담을 헐어버렸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과 스사로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치며 통회하는 세리와와 사이에 있는 담을 헐어버렸다. 예수는 •살

롬•의 시작이며 대표자이다. 최후에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인 죄 때에는 히브리 로마 헬라 3국어로 「유대인의왕」이라 기록되었던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정치 종교 문화를 포함한 모든것을 지배하며 그것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롬•을 수립하는 세계의 왕되신 것을 뜻하는것이다. (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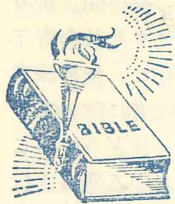
홍동근목사

경도교회로



경도교회는 작년9월에 전영복목사가 사임한후 후임목사로 서울예수교장로회동신교회목사로 시무중인 홍동근목사를 초청해온바 모든 국제적수속을 밟고 거의일년된 8월에 극히 어려운 일본입국이 허락되어 홍목사는 부임하였다.

경도교회는 50년의 역사를 가진교회로서 역대목사가 심혈을 기울여 길러낸 교회요 재일한국인의 교회의 특수성과 전통을 이운 세계교회의 교회적성격을 갖춘 기초깊은 교회인데 만 21년동안근속시무한 전영복목사의 뒤이은 목사로서 일년넘어 온교인이 고대하던 홍동근목사가 도입한 것이다. 국가사정으로 자녀삼남매는 본국에 두고 부인 오명순씨와 함께 부임한 홍목사는 44세의 소장목사요 특히 기독교윤리와 교육학에 조예깊은 신학박도로서 한국기독교교계에 보배로운 존재인데 경도교회의 간곡한부름과 재일동포의 선교적요청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사명적경유를 겪어 도입하게 된것이다. 앞으로 총회소정의 수속을 밟고 총회목사로 임회되는데 따라 경도교회위임목사로 취임하게될 것이다. 우리는 경도교회의 건실한 발전과아울러 홍동근목사가 재일 60만동포에 대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맞이않는다.



聖書

連れて行かれる人生

ヨハネ 21:15~19 金元治 牧師(西成教会)

1. ペテロは復活の主に会って主を愛するかと問われて主よ他の何よりも主を絶対に愛しますと答えた。その時に主は彼に対して「他の人があなたに帯を結びつけ行きたい所へ連れて行かれるであろう」と言われた。これはペテロにどんな死にかたをするかを示したのである。死ぬ時だけでなく彼は漁師の家庭に生れ、一生漁師たるべく運命づけられると思ったが、青春の時に主イエスに呼ばれて伝道のわざにたずさわったのが彼の一生の仕事になったわけである(マルコ1:16~18)。コーバディストミネという小説でペテロは迫害のローマから友人の勤めもあって逃げ出して行く道中でイエスにあって、彼は主よいずこへお行きになるのですかと聞くと、私は君が逃げ出しているローマにもう一度十字架につけられに行くのだと言った。この時にペテロははっと思っローマへひきかえして行って十字架にかかった。

2. 主イエスが馬小屋で生れるというあんな気の毒な生れ方をして今度は家に帰ってまともな室内で育てられるかと思うと生れるやその母の産後養生も出来ぬ間にエジプトへ逃れていかねばならなかった(マタイ2:13)主イエスの誕生をお祝いに来た東方の博士たちは自分の来た道から帰らないで他の道から帰りなさいとの天使の声を聞いた(マタイ2:12)。收税人として生計を立てたマタイは主イエスに会い心を入れかえてイエスの弟子入りをした(マタイ9:9)。

3. アブラハムは故郷ハランを後にして行く所あてもなしに旅立ったのである(ヘブル11:8,創12:1~6)。人生はいつも自分が思っていることが思うようにすすめられ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お互いの短い人生でも全く思いもよらない生活をしているわけである。自分が好きでやる職業ってあまりないのではないかと思う。自分の

思うようにならなかつたらといてそれが失敗になるとは思えない。むしろそのことが成功であり幸福である場合が多い。いづれにしても人生とは神に連れられて行くものである。思いがけない所に導かれていっても私たちはそれをなげくことなく反抗することなくそれが神の意である時に苦らくともその連れていかれる人生の方を選びましょう。

▶ 投書 ◀

少年サンデーの差別マンガ

横浜 藤野 豊

初めてのお便りをお出します。

僕は横浜に住む高校3年の者ですが、学校で部落問題研究会にはいっております。

関西の方では、部落問題への関心が強く、教会などでも、部落解放運動を行なっているとか聞きました。それに比べると横浜などは、まったく後進地帯で、部落問題という言葉も普段は、ほとんど聞きません。それでは差別がないのかといいますと、そうではなくて、差別は根強く残っているのです。

話は変わりますが、8月5日の朝日新聞の朝刊で「在日外国人の人権を守る会」が少年サンデー連載の「おとこ道」というマンガが朝鮮人差別

を助長するものだとして小学館へ抗議した、という記事を読みました。僕もさっそくこのマンガを読んでみましたが、あきれました。以下は少し僕の感想を書きます。

まず日本軍が朝鮮や中国を侵略し、多くのの人々を殺したのに、それについてはふれていないことです。僕は終戦のときのことは知りません。あのマンガのように朝鮮人がヤミ市などで悪いことをやったのは事実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ながら、侵略され、苦しめられた彼らが日本軍に、いや日本に憎しみをいだいたのは当然であり、日本の敗北により、彼らの憎しみが爆発したのも当然です。日本軍(というより)日本は、半島で

多くの朝鮮人を虐待し、奴隷のようにして日本へつれてきて、強制的に働かせました。ですから、朝鮮人にとって、日本が負けたことは救になったの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時点において今までよくも苦しめたなという気持ちから終戦時に、ヤミなどで日本人を苦しめたのでしょうか。

さっきも書きましたが、僕は真実を知りません。しかし、たとえあのマンガの描写が本当であっても、朝鮮人が悪いのではないのです。あのマンガでは、あたかも朝鮮人が悪く、ずるい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まったく一方的としか言いようがありません。未だに、朝鮮人はきたないとか、相手をからかうときに朝鮮人などというのを聞くことがあります。なぜそんなことを言うのか。僕は日本人の一人として本当に恥づかしい。そして、理由もなく他民族をばかにして満足している人々を許せない。あのマンガはそういう人々にさらに満足を与えるでしょう。

それからもう一つ、あのマンガには問題があります。すなわちやくざ礼賛ということです。やくざがかっこいいと思わせるような個所がかなりあります。作者の気がしれません。作者の頭には、まだ大日本帝国的な考え、男尊女卑の考えなどがこびりついているのでしょう。

とにかく僕も、あのマンガの即刻連載中止を要求します。

ついては、お願いがあります。このことに関する資料、貴方の御意見などがありましたら教え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勝手なお願いですが、よろしく願います。また、僕にできることがありますら、どうぞおっしゃって下さい。お願いします。

第26回
総会召集に
関する件

在日大韓基督教総会の聖徒들 위에 主님의 祝福을 받습니다

70年代에 들어선 世界가 새로운 方向을 찾고 있습니다 在日大韓基督教회는 그리스도의 福音을 이 時代에서 증거하는 준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第26회 總會를 召集함을 통고합니다

- 아 래
1. 日時: 1970年 10月14日 (水) 오전11時 15日(木) 오후6時
 2. 場所: 京都教会 教会堂 이 상

在日大韓基督教會總會 總會長 金德成 (付記 總會任職員會를 10月13日午前1時京都教会에서 開催 합니다

유학을 마치신

황의생, 황재정 목사

황의생목사는 캐나다장로교회의 초빙으로 작년 6월 26일에 일본을 떠나 토론토에 있는 녹크스신학교와 에큐메니칼·인스티튜트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선교」를 영구하며 캐나다장로교 본부에서 교회관리도 시찰하여 지난 6월24일에 귀일하였다 황목사는 나고야 교회의 청빙을 받아 9월초에 부임하게 되었다

황재정목사는 작년 10월에 동남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의 장학금을 받아 뉴지던트로 유학하여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목회학을 연구하고 지난 6월21일에 돌아왔다 황목사는 계속해서 요코하마교회를 섬기고 있다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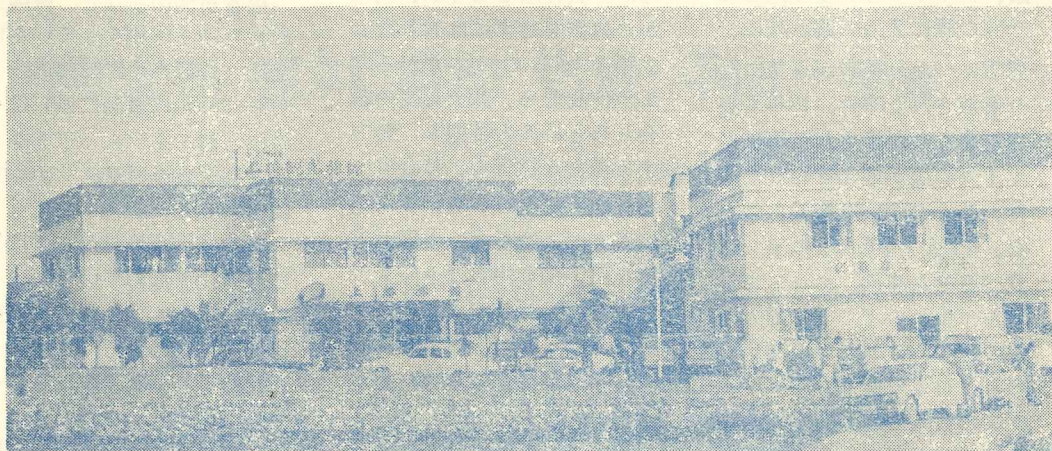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會 指定旅館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 北区 曾根崎町2-21
電話 大阪 (06) 341-2162



修養会に参加して

1970年度全国青修養会

この度、鷺羽山の下電ホテルに於て、「われわれ在日韓国人の社会的責任」（副題、われわれにとってイエスとは何か？）という主題の下で全協主催による全国修養会が開催された。所で、この修養会こそ、今までに見たことも、考えたこともないそういうものであった。というのは、1969年までの17回に亘る修養会の主題は、どこまでも神を前提とし、イエスを神の子、キリスト（救主）と信ずるキリスト者青年としていかに生き、いかに仕えかつ証しするのか？又、神の御旨が何であり、教会を今という時代に在って、いかに理解し、この世の為にどう仕え得るのか？等であったが、今回の場合、主旨が「在日大韓基督教会に変革を」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今年の始めに、堺教会に於ける指導者研修会に発題されたものであった。そこには在日大韓基督教会が批判されているのであるが、それは、どこまでも内部からの批判であって、「……教会の現実的な姿を厳しく見つめることによって、我々の教会を、イエス・キリストを証しする教会とならしめるような教会の変革」である。」と唱っ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彼らが発題し、指摘している諸問題、つまり、(I)社会状況への無関心、(II)慣れ合いと不信、(III)信徒不在の運営、(IV)使命の無自覚性等は、私たちが真剣に、かつ、悲しみと痛みを持って耳を傾けない訳には行かないものである。そしてこの厳しい自己批判の上に立って、社会責任へと向かうものであるものとばかり思っていたのであるが、いざ、蓋を開いて見ると、驚くべきかな、同じ表現を用い乍ら、内容は全く、すり替えられていたのである。即ち「在日大韓基督教会に革命を！」となっていたのである。イエスを主キリストと明白に告白しない者を講師としたことは、全くのミス、いな、破壊的であった。自分は共産主義者なのだと、はっきり告白すれば、それはそれで、そういう考え方も出来ると思われようが、あたかもキリスト教に理解があるかのように思わしめておき

乍ら、裏は全く違っていたという事を強く感じたのである。

何十年間勉強した人でも応答が困難なものを、ただ素朴な信仰に生命を賭けて生きる者に与えたということは、教会の中にまでも、ゲバや革命を起こそうとするも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ても仕方がない。いくら純粋に社会正義に生きるといっても、食欲、嫉妬、復讐心、破壊心、傲慢が絡み合っている現実等々の墜落せる人間の理性でもってのみ聖書を見ようとする時、いろんな人間の解釈が出て来るのは分り切っているのだが、神学的訓練を受けていない者には、分りにくいのである。又、神学的訓練を長年積み重ねている者でも、愚かな質問をすることがあるのである。理性のみに自信をもって、理性内でのみ語っている者に、信仰の領域でもって、突っ込んで行こうとする時、これは死ぬまで論じてみた所でちがが明かないのである。始めから水と油の違いのものが論じ合った感がある。立場の違いのものが合う筈がない。共に産主義思想とはその思想立つ時、真であって、有神論に立つ時、もはや、その考えは、全くあり得ないのである。これが一つに融和するとすれば、一方が消滅する以外にないのである。そういう訳で、今度の修養会が神学生又は神学者研究会という名のもとに行われておれば、それはそれとして意義があったことであろう。指導部の誰かが、教会があらうとなかろうと、信仰がどうあらうと、社会変革こそ重要であるという変革至上主義の考えを以って、従来の神とすり替えてはいないだろうかと思わずにはおれない。

さて、次に、講師である、日本朝鮮研究所事務局長の佐藤勝巳氏の話も、どこまでも在日朝鮮人の差別実態報告であって、韓国人の現状ではなかったように思われる。つまり左翼的なもののみに片寄っ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ある。私達は、ことの重大さ、深刻さを否定しようとは思わないが、羊の装いをした狼のように何故、一言、革

命こそが自分の信念だといえなかったのだろうか。基礎の違う人間が集って、一つになろうとって、無理な話である。

それから、金三奎氏の話であるが、なかなか興味深く聞いた。それは名古屋の鄭君が発言するまではである。中立統一こそ唯一の道だということで、なるほど、それもそうかなと思っていたが、朝鮮大学中退で、今は教会青年として活躍している鄭君が、「金日成や側近の者らが主張して来たのは、言葉の表現こそ違いますが、内容は全くそれと同じものだった。」と言った時、本当にびっくりしたのである。組織の恐しさや思想の厳格さやを知っている彼は、中立統一論は、空しい幻想のようなものだと言ったと思う。これでは、講師達の正体は一体何者かと疑わざるを得ない。左翼的な人間とは、こんなやり方で侵透して行くものなのだろうか？

さて、次に、田川建三氏の聖書研究であるが、家に戻ると、マルコ福音書を読んで見た。確かに部分的に合っている箇所もある。マルコ一章二十一節の安息日はギリシャ語では複数形になっていた。しかし、全体として見る時、無理なこじつけも感じられる。何故なら、マルコの結論を、「イエスの生きたような生き方に従う者となれ」（原始キリスト教史の一断面、三五二頁）としているが、マルコが教えのみでなく、奇蹟をも明白に示していること、悪霊の駆逐、癲病人の癒し、中風の癒し、片手のなえた人の癒し神の国についての多くの言及、風と海とを従わせた奇蹟、レギオンという悪霊が2千匹の豚に入って溺れ死に、悪霊につかれた者が正気になり解放された事件、12年も長血を患う女が癒された事件、ヤイロの娘が甦えられた事件、多くの病いを癒したこと、5千人と4千人とにパンを食べさせた事件、スロ・フェニキヤ生れのギリシャ婦人の娘の癒し、ガリラヤの海辺での耳と口との癒し、ベツサイダでの盲人の癒し、ピリポ・カイザリヤでのペテロの告白とイエスの言葉、山上の変

貌、不信仰な父親の息子の癒し等を見ても、たとえ、人間的な又、社会改革的な面も多くあるにしても、ただ、それだけでは解決しえぬ、神的力量、人間以上のものなくして考えられぬものがあるからである。

それ故に、人間的な面のみを見ようとするのは、一面的であるといわざるを得ないし、人間が、キリストの生きざまの如く生きるというなら、もっと奇蹟を省いて、別な描き方があったことであろう。キリストが父なる神と共に瞬間瞬間を徹底的な緊張関係に於て、絶対的な生き方なしに、あんな生き方は為し得なかったであろう。つまり、普通の人間の生を通して、神として生き、かつ、人間として生きたという以外にない、そういう生き方を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マルコは、田川氏が云うような、理論と実践とが一つになったイエスを語ったのではなく、真の神にして真の人、しかも、理論と実践とが、全く一つになった驚くべき生き方を示しているイエス・キリストを提示したと見る以外には、こじつけにしかないのである。この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る群れの歴史が2千年を経ている。彼らは、イエスを単なる人間、社会革命家と見るいろいろな思想と戦い克服して今日に至っているの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を告白することなしには今日の教会は在り得なかったであろう。受肉し、十字架にかかり、復活し給うたイエス・キリストは過去も現在も、未来も生き働き給うのである。或る歴史上の一時期に、社会責任が薄かったからといって、一切を剥取ろうとするのには否と云わざるを得ない。その意味で、在日大韓基督教会総会が、事の真偽を確かめた上で、当局者の責任を明白にさせて、全協を直ちに解散せしめるか、或いは、向こう一年間活動停止をさせるか、責任者を省くか、何らかの処置をせずにはおれない立場にあるのではなかろうか。何故なら、教会を真の教会たらしめんと苦悩し、努力する者と、信仰も、教会も一切破壊してもいいという考えの者とは、変革という同じ言葉を用いても内容は全く入れないものだからである。今や総会そのものが、徹底的に問われざるを得なくな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60万円以上の素朴な信者の援助を受け、100万円以上の

費用を費して、長い間、祈りと汗で培われて来た教会青年達を三夜の中に、無神論者に、聖書否定論者に作って丁度いいことは一体どういうことなのか？あらゆる悪口と批判の中で、血の出るような苦しみを刻み込まれ、その中に於ても、汗と涙で共に歩んで来たこの尊い信仰の道を、何の責任もない若人の言道によって、破壊しようとしていることには耐えられぬものを感じる。「キリストに従ってこの世へ」という主題も再検討の時期に来ているのではなかろうか。最初にこれを打ち出した人間は、最も深いことを考え、意図しただろうと思う。しかし、結果的には、全く意外なことになったという他ない。この責任に一体誰が取るというのか？

信仰告白の上に立った、あらゆる批判に対しては謙遜に耳を傾け、共に改革へと進むであろう。しかし、それを離れてはも早、何の関係もないということを明白に言っておきたい。それなくしては、何もないからである。初代教会の時からそうだったのである。

和解(日本語版)

韓国家庭文書宣教会
日本支部発行誌

同胞の家庭訪問に際し配布して下さい。信仰、社会、人権等の問題を取り扱い多方面から好評を得ています。

一部20円で申込んで下さい。

東大阪市南莊町9-18
枚岡教会内

自動機械を導入

僑文社

福音新聞印刷など、韓国文のあらゆる印刷をしている僑文社（大阪市生野区鶴橋南之町2-335—代表高仁鳳）はこのほど西ドイツ・ハイデルベルグ製全自動プラテン印刷機械を導入した。

当社ではかねてから、印刷の合理化を進めていたが、その第一歩として、機械の自動化から手始めたわけである。これにより、B4版以下の小物の印刷が、いままでよりきれいに仕上がることになり、関係者には期待が持たれよう。